

시설에서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과 욕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이 동 귀 강 승 립[†] 박 종 철 이 수 지 손 하 립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 8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를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의 불안요인 핵심문장 51개, 욕구요인 핵심문장 37개를 도출하였다. 핵심문장에 대한 참여자들의 유사도 분류 자료를 기초로 다차원척도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미혼모들의 불안요인은 '정서적 요인 및 물질적 요인'측과 '개인으로서의 여성 및 엄마로서의 여성'측의 2차원으로 요약되었고, 5개의 군집('양육에 대한 정서적 부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미래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친밀한 이성관계가 가능할지 걱정',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구분되었다. 반면, 이들의 자립 욕구요인은 '내부요인 및 외부요인'측과 '인적 자원 및 물질 자원'측의 2차원으로 구성되었고, 총 3 군집('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바람', '물질적 지원에 대한 욕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앞두고 경험하는 불안요인과 욕구요인을 그들의 고유한 시각에서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청소년 미혼모, 불안요인, 욕구요인, 개념도 방법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3872).

† 교신저자 : 강승림, 연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유억겸기념관 203호
Tel : 02-2123-4889, E-mail : seungrim.kang@gmail.com

한국에서 청소년 미혼모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만 24세 이하의 모(母)를 일컫는다(한부모가족지원법, 2018). 청소년 미혼모는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출산 후에도 자녀를 본인 이외의 가족의 자녀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김지연 외, 2013),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가 약 13,000가구에 전체 미혼모의 약 10%를 차지한다. 중요한 점은 청소년 미혼모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전과 달리 입양보다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김은지, 황정임, 2012)는 점이다.

청소년 미혼모는 ‘청소년’ 및 ‘미혼모’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다(김은지 외, 2013). 이들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학업 및 개인의 성장과 성인기 발달과업인 ‘임신 및 출산, 생계유지, 부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성인기에 겪게 될 발달론적 변화인 임신을 청소년기에 겪으며 발달과업 불일치로 인한(이은림, 이근매, 2005) 어려움에 직면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원가족 및 기존의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한부모 가족지원법, 2016)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며, 흔히 통상적인 규범에서 이탈했다는 낙인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 및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한다(김은지, 최인희, 최윤정, 최진희, 김혜영, 2016). 이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김지연 외, 2013). 이에 청소년 미혼모들은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과 초기 양육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김은지 외, 2016).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는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녀와 함께 독

립된 가정을 꾸려 자립하여야 한다. 자립이란 경제적인 자립을 포함하여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정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송지현, 정소희, 2014),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장인경, 2013). 그러나 청소년 미혼모들이 시설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정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이현주, 엄명용, 2013), 이들이 퇴소를 준비하는 시기는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도기로 자립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독립한 재가(在家) 미혼모들은 단계별 자립 준비가 미흡해서 자립 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장은정, 2017). 청소년 미혼모들은 다른 취약 청소년들에 비해 자립 준비에 취약하다(조규필, 정경은, 2016). 자립에 대한 준비 없이 퇴소하게 될 경우 이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적·정서적 빈곤 상황에 놓이기 쉽다. 청소년 미혼모의 양육은 자녀 방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지수연, 2012). 김지연(2014)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의 약 30%는 빈곤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 가구 유형,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혼모 자신이 직접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도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미성숙으로(윤형욱, 1993) 인해 모-자녀 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확률이 높고, 열악한 가정환경은 자녀의 발달과 건강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llborn & Dennis, 2012). 청소년 미혼모의 준비 없는 자립은 개인을 비롯하여 자녀, 부모 및 원가족 및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추가적인 사회복지비용 지출(조주은, 2010)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미혼모 가족의 자립과 자활을 장려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문순영, 2015). 2000년대 후반부터 양육 미혼모의 양육과 자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고(이용우, 양호정 2017),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 복지 급여지급 및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9년부터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 수당이 기존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 증가하고(한부모가족지원팀, 2016) 청소년 한부모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각도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혼모들의 자립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지혜, 조성희, 2016). 예를 들면, 미혼모들의 취업과 사회재적응 과정에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장복례, 2006)가 보고되었으며, 지역사회 지원망과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필수적임이 밝혀졌다(김혜선, 김은하, 2006; 김윤아, 이형하, 김혜선, 2008). 청소년 양육 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홍봉

선, 남미애, 2011)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직업훈련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이들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하고 만족도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이처럼 미혼모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미혼모 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이들이 바라는 서비스와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간 간극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용우, 양호정, 2017).

중요한 점은 청소년 양육미혼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그들만의 고유한 입장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청소년 양육 미혼모는 발달 과업과 부모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들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립과 관련된 그들만의 독특한 애로사항을 그들의 시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립 과정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이 부모역할, 교육, 훈련, 취업 중 어떤 요인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데, 일례로 청소년 양육 미혼모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정책 중 어른들의 의해 감독받는 반독립주거(Harding & Kirk, 2004)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이 그들의 자율적인 삶을 통제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에도(Giullari & Shaw, 2005)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금을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여성가족부, 2019), 주거·양육·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교육적 성취를 강조하기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이 선행되어야 한다(홍봉선, 남미애, 2011)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개입의 초점을 명료화하고 자립 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질적 연구를 통해 자녀와 함께 독립한 미혼모들의 자립 과정을 깊이 있게 탐색하려는 일부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이다. 장은정(2017)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성인 재가 미혼모 10명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여 홀로서기 하는 과정을 단계 별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미혼모들의 시설 거주 경험을 각각 ‘도피처와 보호처’, ‘시설연계’, ‘낮은 실효성의 자립지원’으로 개념화하였고, 탈시설 과정 단계를 ‘퇴소를 위한 준비 미흡’, ‘예상보다 빠른 퇴소’, ‘불안한 첫걸음’으로, 탈시설 이후를 ‘극복되지 않은 빈곤’, ‘제한적인 관계망’, ‘계속되는 방황’의 단계로 명명하였다. 김지혜와 조성희(2016)도 성인 미혼모 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 경험을 탐색하여, 핵심주제를 각각 ‘엄마로서의 삶’, ‘생계와 양육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 ‘심리 사회적으로 역량 강화되어가는 삶’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 결과는 설문 조사를 이용한 양적 연구에서는 얻기 어려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이미 독립한 성인 재가(在家) 미혼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자립 준비 경험과 그들의 내적갈등, 불안, 대인관계 대처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과 그들의 독특한 욕구

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개념도 방법으로 분석하여 자립을 앞둔 당사자들의 불안요인과 욕구요인을 심도 있게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도 방법(concept mapping method, Kane & Trochim, 2007)은 소수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후 이를 양적인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대상의 독특한 특성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다(정신영, 이동귀, 박현주, 2012). 특히 연구 과정에서 청소년 미혼모가 사용하는 언어가 반영된 핵심문장들을 추출한 후 그들 스스로 유사한 군집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내적 경험을 그들만의 고유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 미혼모의 상담체계 및 시설-재가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 중이며 자녀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 미혼모 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개념도 분석을 위해서 적합한 연구참여자의 수는 8명에서 40명 이하(Goodyear, Tracey,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인 점과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 중 퇴소를 앞두었으며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인원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고려하여 최소 인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연령	아이 개월 수	시설 거주 기간
1	만 15세	4개월	5개월 차
2	만 22세	9개월	10개월 차
3	만 18세	5개월	8개월 차
4	만 23세	임신 중	2개월 차
5	개인 정보 보호 요청		
6	만 21세	10개월	8개월 차
7	만 20세	12개월	10개월 차
8	만 16세	임신 중	미가입

원인 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제 1 저자가 소속된 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정보보호, 위험 요소 등과 관련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고, 사전에 미혼모 거주시설 담당자의 협조 요청을 구해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표 1과 같으며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0세($SD = 3.42$)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시설 거주 중인 청소년 미혼모들이 시설 퇴소를 앞두고 지각하는 불안요인과 욕구요인을 탐색하고 내면적 개념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개념도 방법에 근거하여 총 4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Kane & Trochim, 2007).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 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연구 주제를 개념화할 수 있는 초점 질문을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

요인과 욕구요인에 맞추고 2개의 초점질문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이고, 두 번째 질문은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할 때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였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개념도에 활용할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연구자들이 이를 종합한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직접 만나 한 명당 약 60분 동안의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녹음을 위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2가지 초점 질문에 대한 면접내용을 녹음하였고 이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1인 및 심리학 및 상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연구자 4명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의미 있는 문장의 추출과정을 3회 반복하였고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핵심문장을 확정하였다. 이때, 중복되는 핵심문장들은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은 제외하였다. 또한 참여자 진술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참여자 진술의 내용을 최대한 수정 없이 반영하려고 하였다. 대부분의 핵심문장들은 의미 있는 한 문장으로 작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문장들은 면접 질문의 초점을 고려하였을 때, 여러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참여자의 생각을 보다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팀의 판단 아래 충분한 토의를 거쳐 반영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핵심문장들의 구조화 단계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종합된 핵심문장들을 분류카드로 제작하고, 연구참여

자들을 다시 만나서 각자가 이해하는 범주로 핵심문장 카드를 분류하게 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50분 사이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각 핵심문장에 대한 중요도에 대하여 5점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로, 이에 대한 달성도를 5점 척도(1 =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다, 5 = 매우 잘 수행되고 있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단계이다. 분석을 위해 SPSS 24.0을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과 2단계 군집분석(Hair & Black, 2000)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차원척도법(MDS) 분석을 통해 지도(좌표) 상에 핵심문장들을 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빈번하게 같은 것끼리 묶인 핵심문장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한다(Kane & Trochim, 2007). 다차원척도법 분석에 필요한 원자료는 8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핵심문장을 보고 분류한 결과를 각각의 행렬에 표기한 것으로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 문장들은 0, 다른 그룹으로 분류된 문장들은 1로 코딩하였다. 완성된 8명의 유사성행렬 파일을 합산하여 집단유사성행렬(group similarity matrix; GSM)을 제작하였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개념도 제작에 사용되는 자료는 GSM이며(Bedi, 2006), 이를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x, y좌표 값이 위계적 군집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된다. 이후 위계적 군집분석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2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위계적 군집분석을 적용할 때 Ward 방법을 사용하였다(Kane & Trochim, 2007). 1단계 군집분석의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를 기준으로 2단계에 사용할 군집의 수를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을 사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했

다. 이후 연구팀이 논의하여 각 군집 이름을 명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군집의 핵심문장들의 공통주제와 각 문장의 중요도 점수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미와 개념을 종합하는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결 과

불안요인 및 욕구요인의 핵심문장 수와 스트레스 값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토대로 진행한 분석결과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 불안요인에 대한 핵심문장은 최종 51개로 정리되었고,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핵심문장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문장들을 최소 4개에서 최대 18개($M = 10.20$, $SD = 5.45$)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요인에 대한 핵심문장은 최종 37개로 정리되었고, 청소년 미혼모들이 핵심문장들을 최소 8개에서 최대 15개($M = 12.30$, $SD = 3.79$)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2차원 해법의 스트레스 값(stress value)¹⁾의 불안요인은 .236이었고 욕구요인은 .249로 나타났다. 이는 개념도 분석을 위한 MDS 분석에 필요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205 ~ .365)를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최윤정, 김계현, 2007; Kane & Trochim, 2007).

1)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은 최적화된 거리와 실제 관찰대상 사이의 거리에 대한 불일치 정도로 0에 가까울수록 일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척도분석에서 적합도가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관찰대상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요인의 개념도

핵심문장 범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차원 척도의 분석 결과, 청소년 미혼모들의 불안요인에 관한 개념도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서적 요인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물질적 요인’ 축과 ‘개인으로서의 여성 및 엄마로서의 여성’ 축의 2차원으로 구성되었다. 2단계 군집분석 결과 ‘양육에 대한 정서적 부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미래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친밀한 이성관계가 가능할지 걱정’,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의 총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고(그림 1) 각 군집별 핵심문장은 표 2와 같다.

군집 1(양육에 대한 정서적 부담: 정서적 요인, 엄마로서의 여성 차원)은 청소년 미혼모들

이 자녀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욕구와 육아, 학업, 경제적 책임 등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현실 간의 차이에서 오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반영한다. 이들은 청소년으로서 학업과 구직에 신경 쓰면서 동시에 양육을 해야 하지만 제도적 지원 및 정보 제공이 마땅치 않고 이는 자신감 결여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핵심문장 51개 중 18개(35.3%)가 군집 1에 속해있으며 중요도 점수($M = 3.40$)도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물질적 요인, 엄마로서의 여성 차원)는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자금이 충분치 못한 데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한다. 주 내용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주거, 생필품 등을 홀로 자금자족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 걱정, 두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군집 2는 불안요인 중 중요도 점수(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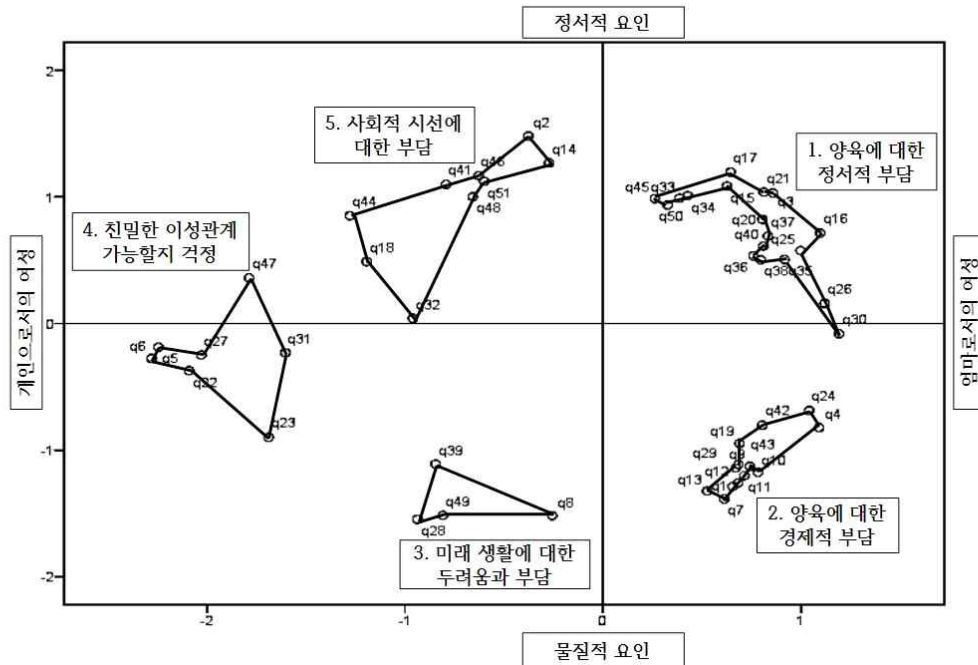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미혼모들의 불안요인 개념도

표 2. 청소년 미혼모들의 불안요인 군집 및 핵심문장

군집 1 : 양육에 대한 정서적 부담 (18문장, 중요도 평균 = 3.40)		
문항	문장	중요도
21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는 게 요새는 너무 무섭다.	4.25
26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 집 보내기 싫은데 돈 벌려면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렵다.	3.88
15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는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문제다.	3.88
33	다른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나쁘게 생각하고, 그게 아이의 친구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 아이가 소외될까봐 걱정된다.	3.75
16	아이가 아플 때 회사를 쉬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계속 쉬는 사람을 받아줄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된다.	3.63
25	2차 시설에서 사람들이랑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3.5
36	뭐가 되었던 참 어떻게 해야 될 지가 제일 막막하다.	3.5
38	도움의 손길이 그 때 가서는 그리울 것 같다.	3.5
3	내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고 밖에 나가면 쭈구리 될까봐 걱정된다. (공부 못하지. 돈도 못 벌지. 성격도 그냥 그렇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화장하고 꾸미는 거밖에 없지.)	3.38
17	아이 양육 방식을 모르고, (아이가 클수록) 정보가 없는 것이 어렵다.	3.38
45	아이란 둘이 살다가 사고날까봐 무섭다. (도난. 성추행)	3.38
50	아기를 잘 케어 못 해줄 것 같아 걱정된다.	3.25
20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걱정된다.	3.13
30	1차 시설에서는 탁아지원이 있는데, 2차 시설에서 아이가 유치원 안 가는 날에는 제가 봐야 하고 집안일 다 해야 해서 불편하다.	3
34	아이가 내가 하던 모습을 그대로 할까봐 걱정스럽다.	3
35	당장 나갔을 때 1차 시설과 달리 완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손으로 뭔가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두렵다.	3
37	보통의 엄마들 보다는 지식적인 부분이나 학습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걱정된다.	3
40	1차 시설에 있을 때 다른 엄마들, 선생님과 좀 더 잘 지낼 걸 하는 후회가 될 것 같다.	2.75
군집 2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13문장, 중요도 평균 = 3.44)		
문항	문장	중요도
9	(어린이집) 어린이날 추가비용, 월세랑 관리비 이런 것들까지 내야 하니까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걱정이다.	4.25
10	나가면 시설에서 지원받았던 것도 끊기고, 후원물품도 바로 받기 어렵고, 모든 것을 스스로 구해야 해서 걱정된다.	4.13
13	큰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힘들다.	4.13
12	나가서 살 때 물품 구매하는데도 돈이 들고, 집세를 내는 것도 버거운데 각종 공과금에 생활비까지 다 혼자 부담해야 해서 막막하다.	3.88
29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만으로 자립을 하기 어려워져 걱정된다.	3.75
42	청소, 빨래. 다 혼자 해야 하는 것, 애기 이유식, 유아식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혼자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서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3.63

표 2. 청소년 미혼모들의 불안요인 군집 및 핵심문장 (계속 1)

문항	문장	중요도
43	2차 시설 가면 돈 벌어야 하니까 걱정된다.	3.5
11	필요한 물품들을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구매를 해야 할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몰라서 답답하다.	3.38
24	2차 시설에서 나오는 지원이 1차 시설에서보다 덜 되니까 걱정된다. (돈, 애기 먹을 것 사주는 것, 옷 사주는 것, 생활비도 걱정되고 취직도 거기서 잘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3.25
7	집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된다.	3
19	자격증 같은 것이 없으니까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지 걱정된다. (진로, 취업 걱정)	2.75
4	어디에 살아야 할 지 모르겠어서 막막하다.	2.63
1	독립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 걱정이다. (애기 매트 사야지, 모기장 사야지)	2.38
군집 3 : 미래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4문장, 중요도 평균 = 2.91)		
문항	문장	중요도
8	실생활에 필요한 그릇 구매, 미리 준비하기에는 깨지거나 녹슬 위험이 있어 걱정된다.	4.25
39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가족이 아이와 둘이 사는 곳에 찾아와서 해를 끼칠까봐 걱정된다.	2.5
49	돈을 못 버니까 기저귀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그런 걸 좀 엄마한테 부탁하기엔 너무 죄송스럽다.	2.5
28	부모님에게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이 걱정된다.	2.38
군집 4 : 친밀한 이성관계 가능할지 걱정 (7문장, 중요도 평균 = 2.82)		
문항	문장	중요도
6	애기 아빠랑은 헤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4.5
5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같이 살려고 하는데, 그 때까지 사귄지 몰라서 불안하다.	2.88
22	아이 아빠가 양육권을 요구할까봐 걱정된다. (아이 아빠가 나보다 형편이 나아 양육권을 뺏길까봐 걱정)	2.75
23	아이랑 둘이 지내기에다 빠듯할 텐데 가족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할까봐 걱정된다.	2.75
47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된다.	2.75
31	아이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와 나의 미래가 걱정이다.	2.38
27	아이 아빠가 어려서 양육비를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	1.75
군집 5 : 사회시선에 대한 부담 (9문장, 중요도 평균 = 2.75)		
문항	문장	중요도
32	애기들이(아빠 없다고) 놀림받을까봐 걱정도 많이 되고 힘들 것 같다.	3.5
18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해 줘야하지' 하는 걱정이 든다.	3.38
2	독립해서 같이 살게 될 언니들이 '그거 해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면서 화를 낼까봐 걱정된다.	3.13
41	어린이집 다니고 그럴 때니까 (아이가) 말썽 피우거나 사고칠까봐 걱정된다.	2.88
48	사람들이 '별써 애기가 있네', '애기가 두 명이네' 그러면서 '아빠는 뭐하고 그러고 다니냐' 묻는 것이 걱정된다.	2.88

표 2. 청소년 미혼모들의 불안요인 군집 및 핵심문장 (계속 2)

문항	문장	중요도
14	3차 시설은 외출이나 외박이 통제가 심한 곳도 더 많다고 해서 가기가 좀 꺼려진다.	2.43
44	(연락할)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가 없어서 걱정이다.	2.38
51	저는 아직 어리고 놀기에 바쁜 시기인데, 놀지 않고 애기를 잘 볼 수 있을까 고민된다.	2.25
46	아이를 보면 예쁘게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싶어질까봐 걱정된다.	1.88

= 3.44)가 가장 높았으며 총 51개 핵심문장 중 13개(25.5%)가 여기에 속했다.

군집 3(미래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물질적 요인, 개인으로서의 여성 차원)은 막연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반영한다. 그릇과 같은 생필품을 미리 사두기에는 파손이 걱정되지만 사뉘야 할 것 같은 불안감과 자신이 부모님께 해를 끼치지는 않을지, 반대로 가족들이 자신과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었다.

군집 4(친밀한 이성관계가 가능할지 걱정: 개인으로서의 여성 차원)는 아이 아빠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과 새로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 아이 아빠와 헤어진 경우 새로운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는 있을지, 사귀다고 해도 아이를 이해해줄지, 언제까지 사귀 수 있을지 등 향후 친밀한 이성 관계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보여준다. 아이 아빠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양육권, 양육비 등과 관련된 걱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집 5(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 정서적 요인, 개인으로서의 여성 차원)는 청소년 미혼모로 살아가며 겪게 될 사회적 편견, 사회적 시선에 대해 아이에게 설명해야 함에 대한 부담감, 사회적으로 부과된 엄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담감을 포함하였다. 주로 아빠가

부재한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 및 자녀의 반응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각 불안요인 문장들의 중요도를 평정한 결과, 청소년 미혼모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한 군집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M = 3.44), '양육에 대한 정서적 부담'(M = 3.40), '미래 생활에 대한 어려움'(M = 2.91), '친밀한 이성관계가 가능할지 걱정'(M = 2.82),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M = 2.75) 군집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에 대한 정서적 부담'은 불안요인의 핵심문장 중 50% 이상을 차지하며 동시에 높은 중요도 점수인 것을 보아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위의 두 요인이 불안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에 대한 욕구요인의 개념도

핵심문장 범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차원 척도의 분석 결과 도출된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요인의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요인 개념도는 '내부요인' 및 '외부요인'축과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축의 2차원으로 구성되었고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바람', '물적 지원에 대한 욕구',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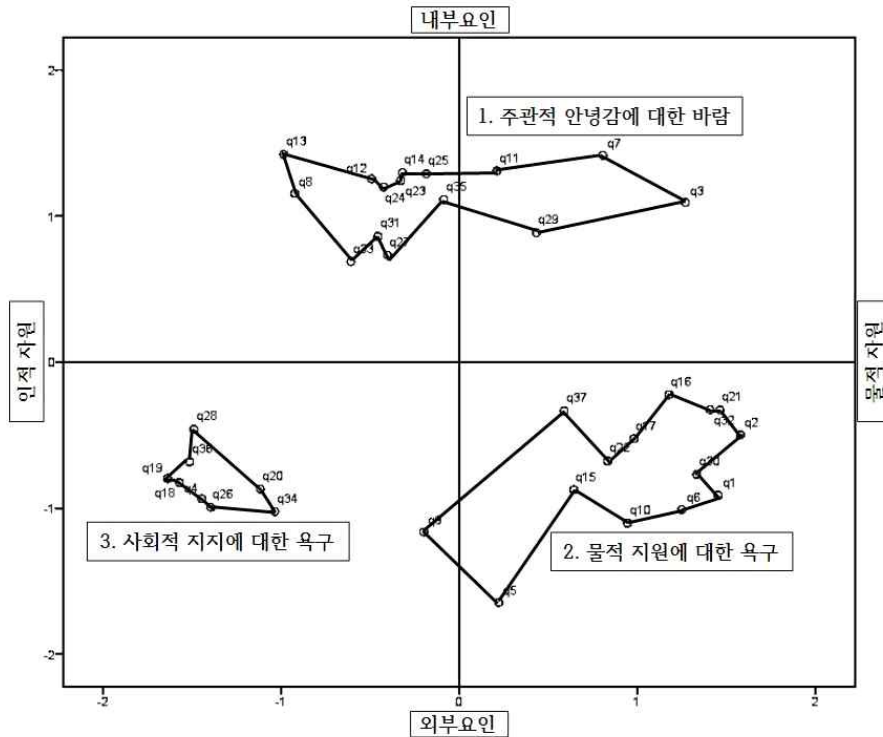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요인 개념도

표 3.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요인 군집 및 핵심문장

군집 1 :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바람 (15문장, 중요도 평균 = 3.97)		
문항	문장	중요도
33	나를 안 좋게 보지 않고 마인드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4.63
7	내가 사는 곳 주변에 공원도 있고 맛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4.25
23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고 본인이 직접 느끼고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4.13
24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13
25	'누구 엄마가 아니라 오로지 '나' 스스로만을 다뤄볼 수 있는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다.	4.13
27	낮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밤에는 애기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면 잘 견뎌낼 수 있다. (균형)	4.13
29	직접 나가서 진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4.13

표 3.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요인 군집 및 핵심문장 (계속)

문항	문장	중요도
31	상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4.13
3	서울처럼 사람들도 많고, 맛집도 많고 놀러 갈 곳도 많고, 뭔가 되게 좋고 예쁘고 살 것들도 많은 곳에서 살면 좋을 것 같다.	4
35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 맨날 생각이 다운되어 있으면 버틸 힘이 없을 것이다.	4
11	나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3.88
12	여행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	3.88
14	무슨 약은 어디에 좋고 무슨 약은 어디에 좋고 이런 것을 알고 싶다.	3.5
13	엄마가 아닌 여자이자 한 명의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3.38
8	목걸이, 귀걸이, 반지 만들기 같은 기술을 배우면 좋겠다.	3.25
군집 2 : 물질 지원에 대한 욕구 (14문항, 중요도 평균 = 4.38)		
문항	문장	중요도
17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잘 되면 좋겠다.	4.75
37	아기랑 함께 있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4.75
1	돈, 집, 차가 필요하다.	4.63
2	LH 갈 때 보증금 내야하니까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그냥 돈 줬으면 좋겠다.	4.63
6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4.63
30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4.63
15	‘아이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라는 마음가짐이 도움이 된다.	4.5
16	집 구하는 것 도와주고 취업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4.5
군집 3 :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 (8문항, 중요도 평균 = 3.30)		
문항	문장	중요도
4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4.5
34	가족이랑 잘 지내면 나중에 애기 키울 때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4
18	엄마, 아빠가 내 상황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3.25
26	동생들 키워본 경험이 도움이 된다.	3.13
36	전에 함께 거주하던 시설 언니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19	친언니와 같이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2.88
20	새로운 아이 아빠를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2.88
28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75

지지에 대한 욕구의 총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핵심문장을 각 군집별로 나누어 표 2에 제시하였다.

군집 1(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바람: 내부요인 차원)은 청소년 미혼모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 물질적 자원과 주변의 지지 등을 포함한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는 상담, 이해받는 경험, 타인과의 교류 등이 있으며, 물질적 자원은 주로 쾌적하고 편한 거주 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군집 2(물적 지원에 대한 욕구: 물적 자원, 외부요인 차원)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위해서 필요한 외부 요인들, 특히 물질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및 육아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 가능한 환경 제공을 통해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을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군집 3(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 인적 자원, 외부요인 차원)은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주변인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가족의 이해, 시설의 다른 미혼모들과의 소통, 신앙 등이 포함되며 이는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믿고 의지할 곳이 현재 부재하며, 이해와 수용, 소통, 사회적 지지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욕구요인 문장들의 중요도를 평정한 결과, ‘물적 지원에 대한 욕구’(M = 4.38),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바람’(M = 3.97),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M = 3.30) 순이었으며, ‘물적 교육지원을 통한 안정적 삶’은 전체 38개의 핵심문장 중 14개(37.8%)로 매우 중요한 욕구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시설 거주 중인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퇴소 후 자립 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과 자립할 때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들의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미혼모들의 선행연구들(박동진 외, 2017; 이경숙, 노정숙, 김수진, 2017; 남미애, 2011; 김희주, 조성희, 김지혜, 2017; 손승영, 2017)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 과정에 대한 경험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 경험을 직접 탐색한 연구였다. 점에서 중요한 차별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들(장은정, 2017; 김지혜, 조성희, 2016)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퇴소 후 자립 시에 어려움 요인과 필요한 요인만을 나열하는데 그쳐 그 요인들간의 관계를 알 수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립 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과 자립할 때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인들을 개념도 방법에 따라 군집으로 묶고 이들 군집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 과정에서 필요요인인 주관적 안녕감의 실현, 물적 지원 등의 사회적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은지 외(2016)에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미혼모가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구성했는데,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면접을 통해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립’의 정의가 무엇인지 자립을 위한 필수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립을 앞두고 느끼는 다양한 심리 요인을 다루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설에 거주 중이며 퇴소 후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육·경제적 부담, 향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개념도 방법을 사용을 통해 그들의 생생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 개념도 연구 방법은 특정 경험에 대해 깊게 탐색하고 특정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고유한 내면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구성 요소와 구조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김나래, 이기학, 2016).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설문 문항을 제시하고 연구 대상자의 응답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경우, 연구자가 생각해 내지 못한 연구 대상자 고유의 경험이 누락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반해 본 연구의 개념도 분석 결과는 연구 대상자 자신의 경험이 누락없이 오롯이 반영되었다는 장점과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양적 방법론(MDS와 군집 분석)을 추가하여 분류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시각적으로도 나타냈다는 점, 즉, 질적 방법과 양적방법의 장점을 모두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진행된 재가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실제 자립 과정과 자립을 앞둔 이들이 생각하는 자립 과정의 간극을 비교할 수 있다.

개념도 분석결과에 대하여 다차원적도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먼저 청소년 미혼모들의 불안요인은 '정서적 요인 및 물질적 요인'과 '개인으로서의 여성 및 엄마로서의 여성'의 2개의 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달과업에서 학업 및 개인성장 등의

청소년기 여성역할과 출산, 육아 등의 성인기 여성역할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립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 않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출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걱정이다.'와 같이 막연하게 기술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막막하다',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와 같이 자신이 계획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즉, 문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피상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교하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토로하거나,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자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김은지 외(2016)와도 일관적이다. 연구결과,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립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난 점도 특기할만하다.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한부모들의 '자립'을 중요하게 반영하였으며, 2019년 청소년한부모 양육지원 수당이 기존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크게 인상되는 등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주거, 생활비 등 외부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지원 정책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나 구체적인 생활비 마련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 성공 자체를 경제적 자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다. 더불어, 일반적인 청소년의 발달 과업인 이성과 교제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 같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특수한 어려움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립 준비 과정에서 퇴소 후의 생활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예. 생활비, 양육 도움)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예행 연습 기회를 제공하며,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낙인 같은 이들의 특수한 어려움, 그리고 대인 관계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단계별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요인의 군집분석 결과는 김지연 외(2013)에서 실시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양적자료 결과와도 유사하다. 김지연 외(2013)에서는 양육 청소년 미혼모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청소년 미혼모들이 지난 한달 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미래에 대한 걱정(80.0), 경제적 어려움(77.0),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56.0), 아이 돌보기(51.0), 직장일(학업)(50.3), 원가족과의 관계(45.5), 집안일(43.3), 사회적 편견 및 차별(42.1), 건강문제(31.3), 이웃/주변사람들과의 관계(29.2)'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중요도 평균 = 3.44), 양육에 대한 정서적 부담(중요도 평균 = 3.40), 미래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중요도 평균 = 2.91), 친밀한 이성관계가 가능할지 걱정(중요도 평균 = 2.82),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중요도 평균 = 2.75)이었다. 이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자립을 앞두고 느끼는 심리적 불안

요소가 비슷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군집분석에서는 '직장일(학업), 건강문제, 이웃/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독립적인 범주로 묶이지 않았다.' 이웃/주변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시선에 대한 부담' 군집의 하위 문항들의 내용 중 '독립해서 함께 살 언니들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 등이 포함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 미혼모들이 생각하는 미래 어려움에 대한 조망이 현재 생활환경에 한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거주 중인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하여 추후 '공동생활지원형'에 입소하게 될 경우 다른 입소자와 함께 생활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이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만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일(학업)'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독립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는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문제다.'와 같이 양육과 관련하여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양육과 생활이 우선순위 과제이며, 직장일, 학업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순위 과제인 양육과 생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학업 등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단계별 자립지원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설에 거주 중이며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의 욕구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욕구요인은 '인적 자원과 물질 자원'이라는 가로축과 '내부요인 외부요인'이라는 세로축으로 구성되며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바람', '물질 지원에 대한 욕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의 세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바람' 군집에

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포용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를 안 좋게 보지 않고 마인드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의 경우 중요도가 4.63,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의 경우 중요도가 4.13으로 나타난다. 이는 김은지 외 (2016)의 연구결과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 청소년기의 특성, 양육자로서의 어려움과 고민, 생활, 심리상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진로상담 전담자가 필요하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시설에 입소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경우가 많고, 원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은지 외, 2016). 따라서 시설 거주 중인 청소년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 및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들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에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 대해서 현재 자신에게 닥친 양육,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미혼모들이 퇴소 이후의 삶과 자립에 대해서 피상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자립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고, 퇴소 후에 자립하여 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세계부터 생활까지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나가야 함에도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이 부족하였다. 퇴소를 앞두고 자립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그릇 구매, 미리 준비하기에는 깨지거나 녹슬 위험이 있어 걱정된다.'는 문항이 중요도 4.25로 나타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립에 대해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및 교육을 진행할 때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셋째,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 미혼모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하여 시설 퇴소 후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 미혼모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시 즉각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 미혼모들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원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지수연, 2012) 가족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이 부족하다. 이는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주변인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추후 자녀와의 원활한 애착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

로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 미혼모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여 청소년 미혼모들의 특성을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통합하여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내 청소년 미혼모들의 특성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념도 분석 방법 중 핵심문장을 추출하여 군집분석을 하는 과정에 청소년 미혼모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결과에서 같은 군집 내에 묶인 핵심문장 중에서 의미가 다른 핵심문장들도 함께 묶였을 가능성이 있다(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따라서 후속 연구 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진술한 핵심문장들과 최종 군집명을 제시하고, 해당 문장이 연구 참여자 본인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핵심문장 분류 및 중요도 평정과정을 직접 실시하였지만, 개념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해석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시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념도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최종 분석과정에 참여하여 당사자들의 관점을 연구 분석 결과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만을 대상으로만 하였기 때문에 시설 거주 경험이 없는 재가 청소년 미혼모들과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설거주 및 재가 청소년 미혼모들을 비교하고 '자립'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도 방법은 높은 수준의 자아 및 환경적 자각을 보이는 충분히 교육받은 개인들에게 적합하나(Riger, 1999),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청소년으로 자아강도가 높지 않아 이들이 분류한 진술문들의 군집이 체계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최종 분석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검증 작업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나래, 이기학 (2016). 여성의 자발적 경력변경 영향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 연구*, 17(1), 227-248.
- 김윤아, 이형하, 김혜선 (2008). 미혼 양육모의 양육체험. *청소년복지연구*, 10(1), 1-20.
- 김은지, 김동식, 최인희, 선보영, 김나연, 정다은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 1-28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지, 최인희, 최윤정, 최진희, 김혜영 (2016).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지, 황정임 (2012). 저소득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젠더리뷰*, 26, 79-83.
- 김지연 (2014).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 1-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곽종민, 박민영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상담일반: 초심 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0(2), 769-792.
- 김지혜, 조성희 (2016). 양육미혼모의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149-180.
- 김혜경,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선, 김은하 (2006). 미혼양육모의 양육결정 체험: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373-393.
- 김희주, 조성희, 김지혜 (2017).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6, 169-196.
- 남미애 (2011).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 청소년의 요인별 생활만족이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03-229.
- 문순영 (2015).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73-103.
- 박동진, 김혜성, 김희숙, 이설아, 엄주희, 권오용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18(4), 323-372.
- 손승영 (2017). 양육미혼모의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여성학연구, 27(1), 35-66.
- 송지현, 정소희 (2014).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7(1), 31-57.
-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888에서 2019, 3. 자료 추출
- 윤형욱 (1993). 부산지역 미혼모의 성경험, 임신, 분만실태 및 향후 생활계획에 대한 조사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이경숙, 노정숙, 김수진 (2017). 미혼모의 정신건강과 모-자녀 상호작용 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467-489.
- 이용우, 양호정 (2017). 양육 미혼모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115-145.
- 이은림, 이근매 (2005).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2(4), 845-867
- 이현주, 엄명용 (2013).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157-187.
- 장복례 (2006).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 (2017).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97-528.
- 장인경 (2013). 자립 동기화 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의 삶의 목적, 자립의지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신영, 이동귀, 박현주 (2012). 자살시도 병사의 불안요인과 욕구요인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3(1), 113-133.
- 조규필, 정경은 (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 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3), 267-292.
- 조주은 (2010).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89. 1-70.
- 지수연 (2012). 보호시설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된 무기력 감소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담평가연구*, 5(1), 13-20.
- 최윤정, 김계현 (2007). 진로상담: 고학력 기혼 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Concept Mapping) 연구-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통계청 (2017).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 통계청 (2017).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rtal/main/EachDt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19, 2, 자료 추출.
- 한부모가족지원팀 (2016). 심리적 울타리 형성을 위한 미혼모 프로그램. *연세상담코칭연구*, 6, 153-174.
- 홍봉선, 남미애 (2011).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18(9), 19-52.
- Bedi, R. P.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26-35.
- Giullari, S., & Shaw, M. (2005). Support or controlling? New labour's housing strategy for teenage parents. *Critical Social Policy*, 25(3), 402-417.
- Goodyear, R. K., Tracey, T. J.,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ding, J., & Kirk, P. (2004). The housing and support needs of teenage mothers. *Housing Care and Support*, 7, 16-19.
- Kane, M., & Trochim, W. M.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 Mollborn, S., & Dennis, J. A. (2012). Investigating the Life Situations and Development of Teenage Mothers' Children: Evidence from the ECLS-B.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1(1), 31-66.
- Riger, S. (1999). Measuring subjectivities: Concept mapping as a feminist research method: Examining the community response to rap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1), 91-94.

1차원고접수 : 2019. 04. 11.

심사통과접수 : 2019. 06. 17.

최종원고접수 : 2019. 06. 28.

The Concept Maps of Korean Adolescent Single Mothers' Anxiety and Needs Factors before Independence from the Rehabilitative Institutions

Lee, Dong-Gwi

Kang, Seung-rim

Park, Chong-chol

Lee, Suji

Sohn, Harim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using the concept mapping method, analyze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 with adolescent single mothers ($N = 8$). As a result, 51 items for *Anxiety factors* and 37 items for *Needs factors* were extracted. Multidimensional Analysis (MDS) and a two-step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ere used to identify underlying dimensions and clusters. For the risk factor, five clusters ('emotional burdens of child-rearing;' 'financial burdens of child-rearing;' 'fear and concerns about future life;' 'concerns about future romantic relationships;' and 'concerns about stereotypes') were distributed on: (a) x-axis for 'emotional and instrumental factors' and (b) y-axis for 'being a woman as a person and as a mother.' Protective factor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adolescent single mothers consisted of three clusters ('desire for perceived well-being;' 'desire for instrumental and educational supports;' and 'desire for social support') were distributed on: (a) x-axis was fo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b) y-axis was for 'instrumental and human resources.'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include: (a) exploring the concept structure of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Korean adolescent single mothers who are about to leave the rehabilitative institutions and (b) identifying their unique and lively experiences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 single mothers particularly from their own perspectives before leaving the facility.

Key words : adolescent single mother, Anxiety factors, Needs factors, concept mapping method